

# 신용잔고 20兆 코앞... 증권사 '조삼모사' 이자율 꼼수 주의

한 달 새 1兆 급증... 6개월 중 최고 반도체 활황과 함께 투자심리 자극 일부 증권사,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 가산금리 임의 상향... 최종금리 유지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급증하면서 신용용자거래 잔고가 20조원을 코앞에 뒀지만, 증권사들의 '이자율 꼼수'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19조 463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8일 18조 8451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에만 1조 가량이 급증했으며, 최근 6개월 중 최고치다. 반도체 활황과 함께 국내 증시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다시 자극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코스닥 시장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잔고가 급증했다. 이날 기준 신용거래 잔고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



/유투이미지

은 반도체 팹리스 기업 텔레칩스(9.12%)였으며, 이외에도 유리기판 업체인 HBT테크놀로지, HB솔루션도 각각 8.87%, 8.78%씩 차지했다. 신용거래용자란 개인 투자자가 담보를 잡고 주식 매수 자금을 증권사에 빌리는 것으로, 신용거래용자잔고가 늘수록 '빚투'가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이자장사'는 여전히 나쁘다. 신용용자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쳐 최종금리가 정해지는데, 이때 기준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CD금리를 사용한다. 여기서 기준금리

는 증권사들이 조정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가산금리는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이를 이용해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폭 만큼 가산금리를 상향해 최종금리를 유지시키는 '조삼모사'식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다만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CD금리) 변화에 따라 가산금리도 조정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업계 입장에서는 각자마다 조달하는 금리가 다를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일괄적으로 CD금리로 통일해 버리다보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10%에 육박하는 신용용자 이자율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감원이 산정 체계를 개편했고, 지난달부터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기준금리(CD금리) 통일, 기준금리의 전월 또는 직전 기준월 대비 0.25%포인트 이상 변동시 대출금리 변경 심사 실시 등이다. 이와 함께 증

권사들의 이자율 자율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비교공시 방안도 실시되고 있지만 사실상 제자리걸음으로 보여진다. 최근 들어서는 메리츠증권(0.69%포인트), KB증권(0.63%), NH투자증권(0.5%포인트), 미래에셋증권(0.11%포인트) 등이 기준금리가 하락한 만큼 가산금리를 올린 바 있다.

김대중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준금리는 고정되지만 가산금리의 경우 개인마다 신용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으나, 산정 기준의 변화 등은 미리 고시만 된다면 한두 달 안에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며 "가장 좋은 방향은 금융기관들이 기준금리를 주고, 가산금리는 시장경제원칙에 맡기는 것이나 증권사들의 개정안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처벌 규정이나 우호 점수 부여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고금리 지속에 美 장기채 ETF 수익률 하락

美30년스트립액티브 12.71% ↓ 경기지표 양호... 금리인하 기대 줄어 단기채 ETF 상품 투자, 비교적 안전

올해 들어 미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미 장기채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시장 내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미 장기채 ETF 투자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TIGER 미국채30년스트립액티브(합성 H)는 12.71% 하락했으며, ACE 미국채30년국채액티브(H)는 9.54% 떨어졌다. 이외에도 SOL 미국채30년국채액티브(H)(-8.26%), KODEX 미국채울트라30년선물(H)(-8.09%) 등이 크게 내렸다. 같은 기간 레버리지 상품인 ACE 미국채30년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 H)도 17.41% 하락했다.

이같이 미국 장기국채 ETF가 부진한 것은 경기 지표가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든 영향이

다. 국채 금리는 올해 들어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10년물 금리는 이미 4.5% 선을 돌파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년물 금리 역시 5% 선을 위협하고 있다.

앞서 투자자들은 올해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 기대에 미국 장기채 ETF 저점 매수에 나섰다. 금리가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잔존기간이 짧은 채권보다 수익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들어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의 순자산은 4190억원 증가했으며, TIGER 미국채30년스트립액티브(합성 H)의 순자산은 2152억원 늘었다. ACE 미국30년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 H)(88억원), SOL 미국30년국채액티브(H)(44억원), KODEX 미국채울트라30년선물(H)(14억원) 등에도 자금이 유입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시점이 미뤄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은 9월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를 기대하게 됐고, 두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 1월로 예상된다"며 "이번 3월 CPI 쇼크로 연내 3번 금리인하 기대가 1~2번으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단기채 ETF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금리가 이제 단기간에 빠질 것 같지는 않다는 시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인하 시기가 늦어지는 시기에는 미국 국채 단기 ETF에 관심을 갖는 편이 낫다"며 "해당 ETF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변동 자체는 높지 않은 대신에 배당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기채 ETF에 접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 KB증권 "삼성전자, 가장 저렴한 AI 주식"

PBR 평가가치·주가격차 해소 전망

KB증권은 11일 삼성전자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인공지능(AI) 주식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1만원을 제시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삼성전자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5배로 경쟁사인 마이크론(3.1배), SK하이닉스(2.1배) 대비 각각 52%, 29% 할인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며 "연초 대비 주가는 엔비디아(75%), 마이크론(44%), SK하이닉스(29%)가 상승한 반면 삼성전자는 6% 상승에 그쳐 글로벌

AI 주식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에 따르면 현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고대역폭메모리(HBM3) 대량 양산을 통해 공급이 개시된 상태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3분기부터 HBM3E와 HBM3 동시 공급이 예상된다"며 "D램 전체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분기 9%에서 올해 4분기 18%로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하반기 D램 평균판대단가(ASP)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감산이 집중됐던 DDR4 공급 부족은 심화되고, DDR5 가격 상승으

로 DDR4와 가격 차이가 30%까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신규 라인 증설이 HBM, DDR5에만 집중되면서 감산이 지속된 D램 라인이 2분기부터 풀 가동한다고 가정해도 레거시 제품의 총 생산능력은 지난 2022년 4분기 최대 생산능력의 75% 수준에 불과하다"며 "올 하반기 레거시 제품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2분기 엔비디아 HBM3E 최종 인증, AI 반도체 매출비중 확대 전망, 레거시 D램 공급부족 심화 등을 고려하면 삼성전자 PBR 평가가치(밸류에이션)과 주가 격차는 단기 해소될 전망"이라며 "AI 산업 최선호주로 삼성전자를 권한다"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주총 논의결과, 투자자에 적시 제공해야"

금감원, 정기보고서 공시서식 개정

앞으로 상장사들이 주주총회 논의 결과를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주주제안 제기 사실부터 처리 경과 등 관련 내용을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에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측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대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명확한 작성지침 부재 등으로 주주제안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주주총회 전·후로 제출되는 사업·분반기 정기보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주제안권 제기 사실과 주주제안의 주총안건 채택 여부 등 처리경과, 주주총회 결과 및 논의내용 등 일련의 과정을 담아야 한다.

개정된 공시서식에 따르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을 사업보고서(주총 1주 전 제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일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주주제안권 제기사실 ▲주주제안 내용 ▲주주제안의 주총 안건 채택 여부 ▲주주제안 처리경과 ▲주주총회 결과 ▲논의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주주제안권 행사현황을 빠짐없이 공시해야 한다. 현행 공시기준상 사업연도말부터 주주총회 전까지 기간은 사업보고서 작성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당해 연도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주주제안권 내역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을 사업보고서(주총 1주 전 제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일까지 내역을 모두 기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주주총회 전 주주제안 제기 사



금융감독원은 주주제안 제기 사실부터 처리 경과 등 관련 내용을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에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주제안권 행사자와 안건내용, 주주총회 목적사항 포함여부 및 거부사유 등 처리경과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기재 시 행사자, 주총 목적사항(안건) 포함여부, 거부사유, 진행경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표 형태의 작성양식을 제공하여 회사의 주주제안 처리경과와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개선했다.

또 정기주주총회 직후 제출되는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총회 사항을 기재하도록 해서 투자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과에는 안건명, 결의내용, 안건별 주요 논의내용 정보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주주제안 안건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안건별 주주총회 주요 논의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서 표 형태의 작성양식을 제공해 주주총회 결과정보를 충실히 제공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경과 및 주주총회 논의내용이 적시에, 충실히 공시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되고 선진 자본시장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